

60년대 여성 정신병의 재현과 히스테리 : 젠더권력으로서의 의학지식과 성애화된 ‘내면’

송인화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목차

- 1 60년대 문학과 ‘정신병’
- 2 우생학과 정신분석학의 이중 억압: ‘희색의 피’와 리비도의 공포
- 3 전통 질서에 대한 희구와 젠더화된 구제 방식: 희생과 승화
- 4 맺으며: 60년대 ‘내면’과 젠더 권력으로서의 정신의학

이 논문은 2019년도 한세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글은 1962년 한국일보 현상모집에 당선된 장편소설 『회전목마』를 대상으로 60년대 여성 정신병이 문학작품에서 재현되는 방식을 당대 의학지식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신의학지식의 체계화와 대중화로 정신병에 대한 담론이 확장되었던 60년대 작품에 역동정신의학으로서의 정신분석과 일제 식민지기 우생학, 그리고 가부장이데올로기가 여성을 어떻게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단속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여성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과잉 성애화 되고 정신병을 가진 여성들은 초자아에 의해 관리되지 못한 미성숙한 아노미로 재현된다. 또한 정신병을 세대를 통해 유전되는 죄로 규정함으로써 우생학적 처벌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여성이 60년대 기초 공동체인 가족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재현된 것으로 일제 시기 우생학과 최신 서구 의학지식인 정신분석이 이중으로 개입하여 여성을 억압한다. 나아가 여성 정신병의 원인과 구제 방식에서도 정신분석이 가부장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여성을 공격한다. 정신병의 원인을 금기를 어긴 사춘과의 사랑 때문인 것으로 제시하고 문제의 초점을 병리적 질병이 아닌 부계 윤리의 파계에 맞춤으로써 전통과 집단의 질서를 이탈한 죄를 정신병의 응징이라는 방식으로 여성에게 전가한다. 낭만적 사랑에 의해 아버지를 배반하고 개인적 사랑과 결혼을 실행한 아들의 죄의식이 작동한 것으로 죄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여성의 정체성은 과잉 에로스화 된다. 정신분석학이 가부장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유혹하는 에로스로 여성을 성애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성차별은 구제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여성이 자살, 살해, 병사로 죽거나 수녀원에 스스로를 가두는 자아 부정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달리 남성은 죄의식을 적절하게 억압하고 승화시킴으로써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는 고뇌하는 지성으로 나타난다. 남성은 리비도를 관리하는 성숙한 문화적 창조자로, 여성은 가족 공동체를 위협하는 에로스 과잉의 미성숙한 아노미적 존재로 재현된다. 미성숙하고 성애로 채워진 여성의 내면은 언제나 공동체를 위협하는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정신의학은 가부장이데올로기, 우생학 등과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젠더화된 과학/지식으로 체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국문핵심어: 여성 정신병, 정신분석학, 우생학, 가부장이데올로기, 성애화, 내면, 낭만적 사랑, 죄의식, 처벌, 젠더화, 과학/지식

1 60년대 문학과 ‘정신병’

1961년 1월 『사상계』에는 “한국인의 정신상태를 진단한다”라는 제목으로 정신과 의사들의 대답이 실린다.¹ 뉴욕에서 수련하고 돌아온 이동식이 사회를 보고 서울대학 의과대학 교수인 남명석과 유석진, 그리고 청량리뇌병원 원장인 최신헤, 심리학자 이진숙 등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가 모여 한국사회를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진단한 이 대답에서 당대 한국은 문화, 정치, 도덕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병리사회로 판정된다. 노이로제, 불안, 욕망, 불합리 등의 정신분석적 개념을 동원하여 한국사회를 분석한 이 대답에서 주목되는 것은 ‘집을 나간 자유부인, 종로 3가 우글우글한 스트리트 걸, 불량 청년의 범죄’가 동류의 정신병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학지식을 동원하여 사회를 진단·분석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가부장적 질서의 외곽에 위치한 자유부인과 스트리트걸, 그리고 불량 청년을 같은 계열의 정신병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여성의 육체가 성적 이미지를 통해 의학적 질병으로 대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이 시기 의학적 진단과 분류가 뚜렷한 생물학적 기준에 의거하기보다 관습적 규범에서 벗어난 사회적 일탈을 범박하게 나누는 기준으로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², 산업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남성중심적으로 재구조화되고 있었던 60년대 이분법적 논리가³ 의학지식에도 상당부분 통용되고 있

-
- 1 「한국인의 정신상태를 진단한다」, 『사상계』, 사상계사, 1961.1, 244-247쪽.
 - 2 실제로 대답에서 정신병의 기준에 대해 의사들은 ‘모호하다’거나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뚜렷한 생물학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위의 글, 241-247쪽.
 - 3 전후와 60년대에 현모양처와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남성중심적 논리를 (재)구축하고 있음은 권보드레·천정환, 『1960년을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2, 1-663쪽; 김양선, 「전후 여성 지식인의 표상과 존재방식—박경리의 『표류도』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5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235-256쪽; 김은하, 「중산층 가정소설과 불안의 상상력: 강신제의 장편 연재소설을 대상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115-145쪽; 송인화, 「1960년대 『여원』 연재소설 연구—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인, 부랑아 등과 함께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사회를 위협하는 정신병으로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60년대는 ‘정신병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신과 의사들의 거듭된 주장에 의해 각 대학에 정신의학과 전문과정이 설치되었고 정신병원이 각 지역에 신설되었으며 ‘노이로제’, ‘히스테리’ 등이 일반인의 대화에도 사용되는 등 정신의학의 대중화가 상당히 진행된다.⁴ 문명사회의 질병인 정신병을 분석하는 정신분석학은 산업화사회로 본격 진입한 60년대 한국사회를 진단하는 유용한 과학/지식으로 지식 담론장에 유입된 것으로,⁵ 정신의학이 인간의 정신에 대한 물음과 닿아 있어 인문사회 담론에 참여할 가능성이 다른 의학전공보다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⁶ 더불어 50년대 이후 한국정신의학의 중심이 역동정신의학으로 일컬어지

연애담론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93-336쪽 참고.

- 4 임지연은 1960,70년대 정신의학담론이 어떻게 체계화되고 범주가 확장되는지를 탐구하면서 60년대는 약 광고, 노이로제 개념의 담론화, 환자들의 ‘문답란’ 등을 통해 정신의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임지연, 「1960-70년대 한국 정신의학 담론 연구-정신위생학에서 현대 정신의학으로-」, 『의학사』, 대한의사학회, 제26권 2호, 2017. 181-214쪽.
- 5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동식으로 그는 1963년 말부터 1년여에 걸쳐 『사상계』에 「정신의가 본 인생과 사회」라는 컬럼을 통해 한국사회의 가족관계와 문화를 노이로제 증상으로 분석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노이로제의 시대」(63.11), 「위드와 킬러의 심리학」(63.12), 「노이로제와 친자관계」(1964.1), 「외국인과 우리의 주체성」(64.4), 「노이로제와 부부관계」(64.5), 「종교의 정신분석(64.6월)」, 「노이로제에 걸린 학생들」(64.7), 「꿈이란 현상과 노이로제」(64.8), 「노이로제와 고부관계」(64.10), 「내부독재와 패배의식」(64.11), 「형제·형수관계와 노이로제」(64.12) 이외에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사회를 진단하는 수필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최신해, 용의 심층심리학으로 컬럼을 쓰고 문학 작품을 분석한 이부영, 정신분석학적 방법으로 문학연구를 진행하여 단행본까지 낸 조두영 등 정신의학자에 의한 문학과 사회분석 컬럼 등이 6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 6 이동식과 유석진은 이를 잘 보여준다. 대구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신경정신과와 뉴욕대 신경정신과에서 수련을 받은 뒤 뉴욕 윌리엄알란슨화이트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정신분석과정을 수료한 이동식은 ‘무미건조한 의학 공부보다도 정작 언어학 같은 인문사회 분야를 공부하고 싶었고 결국 인문사회 분야,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이 그를 정신의학에 눈 뜨게 했다’고 정신의학에 입문한 동기를 밝히고 있으며 불교적 세계관을 적극 수용한 통합적 정신 의학을 주장하였다.(「한국정신치료학회 명예회장 이동식 박사-대학자의 참다운 인술(仁術)—이동식선생님과 만남」, 『불광』, 1999.11) 경성제국대학을 졸

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으로 이동했던 것도 결정적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 강점기 유전학을 중심으로 정신병을 유전적 열등인자로 보고 그것의 소멸을 치료법으로 내세웠던 우생학 중심의 정신의학은 50년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균의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미국 정신의학을 주도했던 프로이트 정신분석이 역동정신의학으로 적극 유입된다.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의학자들은 미국 유학을 통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대학교육에 활용한다.⁷ 1957년 개최된 〈프로이트 탄생 10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연제에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테마인 불안, 성욕, 히스테리를 포함하여 예술, 종교 등까지 다각적으로 다루어졌고, 행사가 ‘미증유의 대성황’을 이루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⁸ 프로이트 정신분석은 정신의학이론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심리 혹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한국 지식계에 강한 충격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⁹ 인간과 사회를 분석하는 지식의 도구로 정신의학이 동원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물학적 지식으로 구성된 우생학에 비해 무의식, 리비도, 자아, 초자아, 억압 등의 심리 개념을 통해 인간의 정신을 해명하는 정신분석은 인문사회 지식과 만날 수 있는 가

업한 유석진 역시 실험과 분석 중심의 의학공부에 싫증을 느끼던 중 무언가 진리를 배우고 싶었던 차에 일본교수 하야시의 조건 반사 방법론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전집을 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의학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게 됐고 신경정신과를 전공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한국 정신의학 100년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9, 109쪽.

7 위의 책, 101쪽

8 위의 책, 102쪽

9 1957년 6월 7일 서울대학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개최된 프로이트 탄생 101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프로이트 정신분석을 기초로 한 역동정신의학의 바람을 일으킨 대사건으로 기록될 만큼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정신의학은 물론 심리학과 인문학자들이 참석하면서 미증유의 대성황을 이루었다. 발표된 연제는 다음과 같다. 1.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주요개념, 2.프로이트의 히스테리론, 3.프로이트의 Libido 성욕론, 4.프로이트의 꿈 분석론, 5.프로이트의 Witz론 6.프로이트의 예술론, 7.프로이트의 집단심리론, 8.프로이트의 종교론, 9.프로이트 심리학의 철학적 배경, 10.新原氣論의 관점에서 본 프로이트 성욕설에 대한 비판, 11.프로이트 학파에 관하여, 12.최신미국정신의학계와 프로이트의 위치(위의 책, 102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저신과학교실, 『정신과학교실 100년을 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정신과학교실, 61-62쪽) 프로이트 100주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사상계』에서도 확인되는데 1956년 9월호에 프로이트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로이트 특집을 게재한다.

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50, 60년대 미국 정신의학은 정신분석이 정신의학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정신의학계를 완전히 장악하였고,¹⁰ 정신분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5,60년대 미국 유학과 수련을 통해 교육받은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귀국 후 한국정신의학의 지도적 자리를 차지함은 물론 대담과 컬럼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설명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정신분석은 당대 지식장에 신선한 자극과 충격을 주었다.

이에 더하여 정신분석학이 60년대 지식인에게 각별히 매력적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내면’을 분석하는 적절한 개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현실적 생활의 기초를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지적으로 고무된 60년대 지식인들에게 정신분석 개념은 고뇌의 상징이자 지성의 심상공간인 ‘내면’을 설명하는 자의식적 성찰의 도구로 매력적이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과학/지식으로서의 정신분석은 자기성찰과 분석을 위한 중립적 개념으로 여겨졌고 무의식, 꿈, 욕망, 히스테리, 그리고 성은 내면을 해명하는 검증된 지식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문학 창작에서도 예외적이지 않아 이청준이 정신병원이나 정신병을 소재로 직접 선택하거나 정신과 의사를 반복적으로 다루는 등 정신질환을 테마로 탐구하였고 김승옥이나 황순원도 인간을 탐구하는 내면의 공간으로 무의식, 불안, 욕망 등을 자각적으로 사용한다.¹¹ 정신분석학적 지식을 직접 사용하든 아니면 인간 심리를 해석하는 방법적 사유로 도입하든 문학 창작에서 내면은 정신분석학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막연하게 불건강한 인간으로 접근되었던 50년대 손창섭 소설의 정신병이 60년대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가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60년대 여성인물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탐구한 작품은 거의 없다. 여성인물의 내면을 정신분석적으로 초점화하여 접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남

10 프로이트 정신분석이 미국정신의학계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은 에드워드 쇼터의 『정신의학의 역사』를 참고. 에드워드 쇼터, 최보문 역, 『정신의학의 역사』, 바다출판사 2009, 245-314쪽.

11 문학비평 분야에서는 원형갑을 중심으로 정신분석비평이 이루어지는데 정신분석학을 적용하여 『현대문학』에 1960년 4월부터 6월까지 연재한 「해석적 비평의 길」로 1962년 제7회 평론부분 현대문학상을 받는다.

성 인물이 전통과 사회적 폭력에 의해 정신이 억압된 것으로 제시되었던 것과 달리 여성은 산업화 혹은 근대화 사회의 부정성을 표상하는 비유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현재 잘 알려진 작품 중에서 여성의 심리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알아보는 쉽지 않다.

이 글은 60년대 정신분석으로 대변되는 정신의학 지식이 여성의 정신병을 재현하는 데 어떻게 동원되는지를 66년 발표된 장편소설 『회전목마』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회전목마』는 한국일보 현상공모에 당선되어 발표된 이견영¹²의 작품으로 여성 인물의 심리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정신분열증에 걸린 어머니와 여동생을 중심으로 가족의 비극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당대 작품 중 흔치 않게 정신의학 지식을 동원하여 여성의 정신병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것이 여성 재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 작가의 첫 작품이고 전업 작가로 활동하지 않아 후속 작품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신문사 현상모집에 당선된 작품으로 작품의 시각에 대해 심사위원들의(김동리, 황순원, 박경리, 백철, 장용학)의 인정된 합의가 전제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60년대 문학이 여성정신병을 접근하는 시각을 알아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60년대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이청준과 김승옥, 황순원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전통의 압력, 국가권력의 폭력, 근대의 물질주의적 위력에 의해 남성인물의 정신이 왜곡되고 훼손되었다고 해명한다.¹³ 대체로 90년대 이후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는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연구방

12 이견영은 서울공대 3학년 재학 중 66년 한국일보 창간10주년 현상모집 공고를 보고 휴학한 후 작품을 집필하여 당선되었다고 한다. 이후 『차가운 강』(1969), 『빙하의 계단』(1980), 『회색이 흐르는 거리』(1980, 경향신문 연재), 『마지막 인사』(2009), 『엄마의 목각인형』(2016) 등을 발표했고 72년 도미하여 노스웨스턴대학에서 건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학계와 공직에서 주로 활동했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그가 전업 작가의 길을 가지 않은 것은 ‘작가의 길을 직업으로 택할 때 생활에 억눌려 진실된 일면을 잃을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회전목마』는 66년에서 67년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되었고 단행본으로 발간된 작품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이견영, 「작가의 말」, 『회전목마』, 문예출판사, 1968, 276-277쪽.

13 이에 대한 주요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찬제, 「李清俊 小說에 나타난 不安 意識 연구」, 『어문

법으로 사용하여 인물을 분석한 것으로 정신의학의 문학적 전유와 재현을 살펴 보고자 하는 이 글의 연구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이 글은 여성정신병을 집중적으로 다룬 작품을 대상으로 60년대 정신의학 지식이 여성정신병 혹은 여성의 내면을 재현하는 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과학/지식 담론의 젠더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⁴

2 우생학과 정신분석학의 이중 억압: ‘회색의 피’와 리비도의 공포

『회전목마』는 정신분열증에 걸린 부인과 딸로 인해 죄의식과 공포에 갇힌 한 가족의 비극적 해체를 그리고 있다. 작품은 음대 교수인 안영학 교수 가족의 비극을 미술가이자 평론가인 둘째 아들 영우의 시선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정신분열증과 그것을 두려워하는 가족들의 공포가 집중적으로 부각된다.¹⁵ 따라서

교육』 제3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89-212쪽; 최애순, 「1960년대 정신분석의 도입과 근대적 공포 코드의 전환 - 이청준 소설의 ‘정신병자’와 정신분석 치료의 충동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73-311쪽; 김은정, 「질병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청준의 〈퇴원〉 읽기」, 『우리말글』 제77호, 우리말글학회, 2018, 245-271쪽; 정원채,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웃음의 미학」, 『현대소설연구』 제3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387-412쪽; 양선규, 「황순원 소설의 분석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국어국문학과, 1992, 1-192쪽; 심영덕, 「황순원 소설 『별』에 나타난 ‘소외’ 양상」, 『한민족어문학』 제74호, 한민족어문학회, 2016, 471-499쪽.

14 최애순은 정신분석이 작품에 어떻게 도입되는지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 그는 ‘장화홍련’ 이후 한국문학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공포’가 정신분석의 도입과 함께 정신병으로 귀환했다고 주장하며 ‘정신병’이 ‘원귀’의 공포심을 대체했다고 말한다. 정신분석이라는 의학적 지식을 메타화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신분석을 방법적으로 적용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지만, 분석 대상을 이청준의 일부 작품에 한정하고, 정신분석의 젠더성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래서 공포 코드가 본격적으로 문학에 떠오른 시점을 90년대 혹은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 글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최애순, 앞의 글, 273-311쪽.

15 『회전목마』는 270쪽이 넘는 장편소설이지만 특별한 갈등과 사건이 없이 여성들의 정신병과 그로 인한 병증과 죽음, 그리고 여성들을 둘러싼 가족들의 내적 갈등으로 작품이 구성된다. 작품은 이러한 인물들의 내면을 ‘정신’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인문학적 상상의 심상 공간인 내면과 인문사회나 의학에서 함께 사용되는 ‘정신’의 의미가 일

장편소설임에도 특별한 사건이나 갈등보다는 각 인물들의 내면이 확장되어 나타나고 암울한 비극적 전조에 압도된 인물의 의식이 전면화 된다. 특징적인 것은 작품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여성인물들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영우의 어머니이자 음대 교수인 안영학의 부인, 그의 막내 여동생, 영우의 애인 등 주동인물인 영우와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여성이 정신병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들로 인해 영우의 가족은 헤어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와 절망에 휩싸이는데 공포의 결정적 원인은 병이 ‘유전’된다는 데 있다. 안 교수의 아내인 정신분열증은 딸인 송아에게 나타나 그녀는 정신박약과 정신분열증의 정신병 환자로 진단된다. 이로 인해 피에 대한 자의식과 유전적 불가피성에서 오는 죄의식이 확대되면서 공포에 압도된 가족들은 비밀을 안고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가는, 구도적 인물로 나타난다. 불가항력적 상황을 통해 질병은 죄와 연결되고 ‘회색의 피’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정신병은 공포스러운 죄의 의미로 확정된다. 회색의 피는 생명이 거세된 저주받은 유전적 질병 대한 상징으로 영우의 절망적 의식을 집약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정신병을 유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일제시기 우생학적 접근을 따르는 것이다. 1930년대 일제에 의해 적극 유입된 우생학은 유전학적 지식을 근거로 정신병을 피로 대물림되는 불치병으로 규정하였고 정신병은 이후 국가와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불량인자로 낙인찍혀 후대를 잇지 못하도록 막는 단종의 대상으로 비인간적인 시술의 대상이 된다.¹⁶ 정신병을 소멸과 처지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진단과 처방을 했던 것으로 정신박약자와 정신분열증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 사회의 질적 저하를 막는다는 명분 하에 알코올 중독자, 상습 강간

치한다고 볼 수 없다. 작품에서는 ‘정신’은 남성에게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성에게는 ‘정신병’을 통해서만 사용되고 있어 개념 사용에 서도 젠더화가 발견된다.

16 경성제대 의사였던 김사일은 1938년 『동아일보』에 3회 연재된 「우생학상으로 본 단종법이란 어떤 것」이란 제하의 글에서 유전학적 지식을 장황하게 자세히 설명한 후 ‘국가의 권능으로써 종족의 우수한 소질을 보호하고 악질의 유전을 방지하자는 것이 단종법의 취지’라고 말하며 ‘국민의 질적 저하’를 일으키는 정신병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종법을 시행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사일, 「우생학상으로 본 단종법이란 어떤 것(上,中,下)－제대병원암정내과 김사일」, 『동아일보』, 1938.6.27, 6.29, 6.30.

자 등과 함께 강제로 단종 시술을 받았다.¹⁷ ‘국가’에서 ‘가족’으로 근거가 바뀌었을 뿐 『회전목마』에서 정신병을 ‘죄의 씨앗’으로 규정하고 삭제하려는 의학적 관점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파괴’하는 위협한 병리로 규정하는 것으로, 안 교수 가족이 정신병의 공포에 결박되는 것은 이러한 ‘파괴’의 위협 때문이다. 정신병에 대한 공포는 작품 전체에 강박적으로 나타나는데 건강한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적 삶을 택한 영학, 피아니스트로의 꿈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스스로를 가두는 경아,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고 유학지에서 병사하는 영우의 애인 유주 등에서 그러한 공포가 구체화된다.

영우 역시 정상적 활동을 못한 채 ‘회색의 피’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데 이처럼 공포가 극대화되는 것은 그것이 시대의 가치를 결정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의 기초단위로 간주되며 가족이테올로기를 통해 ‘지켜야 할 최대의 가치’로 부상한 ‘60년대 가족’을¹⁸ 위협에 빠뜨린다는 것은 가족은 물론 사회와 국가까지 위협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성의 정신병은 개인의 질병에 국한되지 않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회 병리로 인식된다.

그러나 우생학적 의학지식을 동원하여 여성의 정신병을 제거해야 할 병리로 대상화하는 것은 60년대 정신의학의 흐름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국전쟁 시기 미8군의 군의학을 통해 적극 도입된 정신분석학은 60년대 정신의학계에 지배적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50년대 이후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이 한국 정신의학담론으로 부상했던 것인데,¹⁹ 유학과 수련을 통해 미국에서 교육받은 정신의학자들이 정신분석학을 최신지식으로

17 일제 강점기 정신병에 대한 우생학적 의학의 억압은 정창권, 『근대 장애인사—장애인 소외와 배제의 기원을 찾아서』 사우, 2019, 117-225쪽; 김창엽 외,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삼인, 2002, 177-258쪽 참조.

18 송인화, 「강신재 소설의 여성성과 윤리성의 문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9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138-158쪽.

19 서양 정신의학의 역사를 기술한 에드워드 쇼터는 정신분석이 1960년에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성공의 극점에 달했다고 하며 프로이드 정신분석이 정신의학 교육과 수련은 물론 1등 정신의학자로서의 지위를 보증하는 결정적 표지였다고 말한다. 에드워드 쇼터, 앞의 책, 245-314쪽.

수용하면서 생물학적 우생학은 정신분석 중심의 역동정신의학으로 대체된다.²⁰ 일제시기 생물학 중심의 우생학이 분석과 상담 중심의 정신분석으로 주도적 자리를 내놓게 된 것으로,²¹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등장하며 진단, 치료 등에서 의학 지식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회전목마』에서²² 여성 정신병을 우생학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의학적 지식 부족이나 의도적 외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는데 정신분석학적 지식이 작품에 대거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생학적 지식은 의학 지식의 ‘미비’보다는 ‘의도된 소환’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공포를 확대하여 처벌의 명분을 강화하고자 과거의 지식을 자각적으로 동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회전목마』에는 우생학보다 정신분석학 지식이 정신병을 재현하는 데 더 많이 동원되며 둘이 중첩적으로 여성 정신병의 재현에 작용한다. 여성인물들의 정신병은 프로이드 정신분석을 통해 병적 증상이 설명되고 병명이 진단되는데 무의식, 꿈, 동굴, 성욕 등 정신분석의 주요 개념들이 인물의 갈등과 내면을 설명하는 기제로 사용된다. 안교수 부인이자 영우의 어머니인 은미는 질투망상에 의한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끝내 환각과 망상에 의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자살한다. 이러한 은미의 정신분열증은 정신과 전문의인 상만에 의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진단된다. 하나는 남편인 안교수에 대한 광적인 의심과 질투, 또 하나는 원시적 에로스가 표현된 조각들이다.

작품은 안교수 가족의 비극의 원인과 과정을 밝히는 일종의 미스터리적 구성을 취하는데 따라서 정신분열증은 신비하고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동굴 곧 무

20 서울의대에서는 1957년부터 미국 역동정신의학의 대표적인 책인 『Neusus Modern Clinical Psychiatry』를 가지고 정신의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앞의 책, 102쪽.

21 1960,70년대 정신의학담론을 연구한 임지연은 1960년대를 정신의학의 본격적인 형성기로 규정하며 60년대 한국의 정신의학 담론은 정신병을 제거하거나 분리할 대상으로 여겼던 식민지 시기의 우생학적 정신위생학과 1950년대 과도기적 성격의 정신의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임지연, 앞의 글, 14-15쪽.

22 영우의 친구이자 작품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로 제시되는 상만은 미국 유학을 마친 뒤 청량리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이다. 작품에는 상만을 통해 정신병의 진단 방법은 물론 당시 정신의학과에서 실제 행했던 전기치료와 외과수술 등이 제시된다.

의식을 세계를 발견하는 과정처럼 제시된다. 그것은 전문의인 상만에 의해 ‘어둠과 같은 병’, ‘심연과도 같고, 음습하고 침침한 습지와도 같’은 것으로 즉,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무의식적 동굴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것을 진단하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한데, 바로 ‘과도한 성적 욕망’이다. 남편인 안 교수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3남매를 낳아 살았던 은미는 남편에 대한 ‘광적인 질투를 품고 가끔 히스테리를 부’(78)리다 결국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청량리정신병원에 입원해 정신과의사인 상만으로부터 ‘질투망상에 의한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은미의 행동이 비정상이라는 것은 안 교수가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했고(…) 음악대학 교수로 아버지 주위에 여제자가 많다는 사실이 어머니의 질투심을 자극했던 모양”(56)이라는 밝히는 데서, 곧 일반적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입증된다. 나아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광적”(56)인 것이었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닌, 단순한 히스테리는 아니라는”(56) 데서 확증된다. 히스테리와 정신분열증을 구분하는 상만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더해지면서 안 교수 부인의 정신병은 ‘의학적 질병’으로 확증된다.²³

영우는 방안을 둘러 보았다. 어두운 방안에 창 유리가 허영게 떠 있고, 그 밑에 침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선반 위에는 어머니가 즐겨 모으시던 갖가지의 인형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이 무척 스산하고 귀기(鬼氣)가 어려 있는 듯했다. 더구나 인형들 옆에 있는 어머니의 조각은 방 분위기를 더욱 음산하게 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아무렇게나 만든 에로티시즘이 강하게 풍기는 서투른 조각이었다.²⁴

그녀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만든 조각은 아프리카 원주민의 그것처럼 성기가 과장되어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성적 표현물이었고 그녀의 일기도 딸과의 사이를

23 당시 정신의학에서는 히스테리, 노이로제와 정신분열증을 구분하였는데 히스테리와 노이로제는 정신병으로 진단 받기 전의 갈등이 심한 심리적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24 이견영, 『회전목마』, 문예출판사, 1968, 25쪽. 이후 작품은 쪽수만 표기함.

의심할 정도로 일탈적임을 보여준다.

저녁을 마치고 나서 무심히 서재의 문을 열어 보니 둘이 얼싸안고 있지 않은가? 경아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는 서재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뒤는 나는 모른다.

경아까지.... 경아까지....

그는 색마다! 추잡한 사내, 더러운 사내, 그 온갖 것을 한꺼번에 지닌 사내....

나는 그를 저주한다. 증오한다. 미워한다.

그는 원래 그런 피를 지닌 사내였다.²⁵

이를 통해 은미의 정신병의 원인이 ‘에로스 과잉에 의한 충동 장애’임이 입증된다. 무의식에 잠복해 있던 성 에너지인 리비도가 제어되지 못하고 현실세계에 그대로 나타남으로써 가족공동체를 위협하는 병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정신병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적을 적용한 것임은 물론이다. 정신분석이 여성의 광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은미의 딸로 정신병을 물려받은 송아 역시 어린 나이의 소녀임에도 그녀가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에 어머니의 조각상을 떠올리게 하는, 성기가 과감하게 노출된 성적 이미지가 과도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그것을 ‘본능에 대한 희화(戲畵)’라고 말함으로써 여성의 정신병은 단순한 히스테리나 광기라는 막연한 상태가 아닌, 본능에 잠복된 무의식적 성충동으로서의 리비도 표출로 구체적 내용을 갖게 된다.²⁶

최신 의학 지식의 권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여성 정신병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그러나 여성과 남성이 차별적으로 재현된다는 점에서 과학적 중립성이 훼손된다. 작품에서 안 교수와 은미의 아들인 영우는 물론 정신장애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 조각가인 전상건도 리비도적 충동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25 위의 책, 38-39쪽.

26 영우가 사랑했던 유주 역시 부모의 혼전 성관계로 태어난 데서 병증이 생겨난 것으로 제시됨으로써 정신병을 가진 여성은 예외 없이 에로스적 본능과 연결된 성적 존재로 대상화된다.

병증으로까지 나타나지는 않는다. 영우의 정신적 동지로 등장하는 조각가 전상건은 자신의 장애가 유전되는 것을 막는다며 결혼을 스스로 포기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작업한 조각은 은미나 송아의 그것과는 다르게 에로스적 성향이 표현되지만 정제된, 그래서 예술품으로서의 ‘형태’를 갖춘다. 미적으로 완성된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은미와 송아의 조각과 그림이 본능을 그대로 분출한 ‘원시적 나상’에 가까운 것이라면 원죄라는 제목이 붙은 전상건의 조각은 ‘생명에 찬테라코타’, ‘고고한 음성’, ‘천진스러운 순수함’을 가진 것으로 즉, 성적 충동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으로 제시된다. 미술적 감식안을 가진 평론가 영우가 “하나를 예술 이전의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는 미의식의 섬세하게 다듬어져 있는 것”(60)으로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이는 전문적 지식을 통해 반박 불가능한 사실로 확정된다. 무의식의 에너지인 리비도가 여성에게는 통제되지 못한 정신병으로 나타나지만 남성은 통제된 ‘형식’을 만들어냄으로써 미적인 예술로 승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섹슈얼리티와 육체를 이성과 논리의 반대편에 배치하고 위계화하는 젠더 억압이 발견되거나,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리비도가 ‘관리되지 못한 성충동’과 ‘관리된 성충동’으로 성별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별되면서 여성 억압에 정신분석이 체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계적 이분법에 의해 여성은 이성적 질서 혹은 논리적 형식의 경계 밖에 위치한 타자로 확정되고 리비도 과잉의 위험을 내재한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된다.

사실 여성을 히스테리나 광기로 재현하는 것은 60년대에 처음 시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통적 질서나 가부장적인 윤리가 아닌, 정신분석이라는 의학지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억압되고 규정되는 것은 60대 이후 본격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내면을 에로스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60년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후의 소위 ‘아프레걸’이나 60년대 ‘스트리트 걸’이 팜프파탈의 이미지를 통해 육체를 성애화한 것이라면, 60대 이후는 정신분석학을 통해 내면까지 성애화함으로써 여성의 내면과 육체가 모두 성애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 젠더화의 결과 『회전목마』에서 정신병은 ‘특정’ 여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일반’의 문제로 확장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여성이 정신병에 걸려 있다는 데서 그러한 인식이 확인되며, 더불어 유일하게 정신병이 없

는 여성인 소라가 성적 매력을 상실한 탈성화된 인물로 제시되는 데서 그것은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작품에서 유일하게 건강한 여성 인물인 소라는 영우를 홀모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다. 또 영우가 강박적 공포에 시달릴 때 강박에서 벗어나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 영우도 애인인 유주가 떠난 후 그녀에게 가족의 문제를 유일하게 털어놓기도 하는 등 소라는 영우에게 상담자이자 믿을만한, 그러한 점에서 그녀는 다른 여성과 달리 이성적이고 성숙한 인물이다. 그러나 소라의 연연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영우는 소라를 ‘결국’ 사랑하지 않는다. 국악을 전공하는 소라가 작곡을 했다는 것은 형태를 갖춘 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정신’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녀의 지적이고 이성적 제어력이 오히려 영우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 영우는 그녀에게 ‘기계적이다’, ‘차갑다’라는 평가를 내리며 소라 대신 죽음을 앞둔 유주에게 떠나는 것이다. 여성은 리비도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히스테릭한 내면의 소유자이거나 이성적인 여성일 경우, 남성적 자질을 잘못 내면화한 여성으로 즉, 사회가 요구하는 성정체성을 제대로 내면화하지 못한, 비여성적 인물로 부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회전목마』에서 여성은 미성숙한 내면의 소유자거나, 남성적 자질을 잘못 내면화한 비여성적 인물로 재현됨으로써 선택 불능의 딜레마에 갇히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감시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서 여성은 심각한 갈등과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으로, 이상적으로 따를 정체성 모델이 사라진, 심각한 갈등이 60년대 여성 인물의 내면을 지배한다. 그것이 과거의 가부장적 윤리가 아닌, 최신 서구 의학을 동원한 과학/지식의 권위와 명분으로 규정됨으로써 그러한 차별은 체계적으로 공고화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가주의적 억압이 발생했던 60년대는 과학/지식을 동원한 이분법적 위계화가 다발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면의 영역도 여성의 내면-에로스적 충동/남성의 내면-고뇌하는 지성으로 차별적으로 생산되었던 것으로 의학 지식이 그것의 구성에 결정적으로 동원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60년대 핵심적 테마인 내면이 남성의 경우 사회문제로 고뇌하는 정신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은 가정과 성의 문제에 갇힌 모순적 갈등으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과학/의학의 작동과 그로 인한 여성의 딜레마와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3 전통 질서에 대한 희구와 젠더화된 구제 방식: 희생과 승화

여성을 리비도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남성중심적 한계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프로이드가 상정한 인간은 남성이고 여성은 남성에 부속된 열등한 존재로 그에 대한 선망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남성중심적 인간 이해는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60년대는 아직 그러한 비판적 성찰을 할 지식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역동정신의학을 그대로 수용하고 적용하는 데 집중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 자체의 한계에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회전목마』에 전통적 집단의식과 결부된 가부장이데올로기가 정신분석학적 논리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작품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의 주재자이자 처벌의 주체는 바로 가부장 아버지로 설정된 안 교수의 아버지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호명된 가부장의 명령을 배반한 것이 정신병을 일으킨 죄의 원인이고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로 제시되고 있다.

작품에서 안 교수가 아버지를 배반한 것은 두 가지로 제시된다. 하나는 동경 유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판사나 검사가 되어 오길 기대했던 아버지 뜻을 어기고 ‘상놈의 직업인 풍각장이’가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촌지간인 큰아버지 딸과 결혼한 것이다. 첫 번째는 관료적 권위에 대한 전통사회의 기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통 질서에서 이탈해 독자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60년대 아들의 세대 갈등과 죄의식을 표현한다. 하지만 안 교수가 이후 유명한 대학교수이자 작곡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아버지의 오해 정도로 미봉되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보다 큰아버지 딸인 사촌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근친간의 결혼이라는 점에서 전통윤리를 파기한, 금기를 위반한 심각한 사건이 된다. 연애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은 안 교수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것을 기회로 함께 동경으로 건너가 부부로 지내게 되고 귀국 후 결혼하자²⁷ 이에 격노한 아버지와 큰아버

27 당시 사촌의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작품에서는 은미가 다른 사람의 양녀로

지로 인해 두 사람은 집 안에서 쫓겨나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비밀로 숨기고 살아왔다. 이를 통해 작품은 부계 친족 간 사랑이라는 금기를 범한 것을 ‘죄’로, 정신병은 그로 인한 죄의식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근친간의 사랑에서 나타날 법한 유전적 병리나 생물학적 문제에 있지 않다. 그보다는 큰아버지로 대변되는 ‘창평 안씨 집안’의 문제로 집중된다. 즉, 두 사람의 결혼이 ‘집안에 생채기’를 냈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가부장의 상좌에 있는 큰아버지는 끝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억압되어 아내인 은미의 정신병으로 발현되고 가족의 절망은 결국 가부장 질서에 대한 이탈과 그 공포를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씨족 사회로 유지되는 가부장의 권위와 윤리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것이 죄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징벌로 여성의 히스테리적 정신병을 갖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서사에서 여성의 정신병과 맞서는 것은 전통적 가부장 세계이다. 안 교수의 꿈에 거듭 등장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집안을 배반한 ‘장자의 죄의식’과 그로 인한 ‘억압’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가부장 질서를 배반한 책임을 여성에게 집요하게 묻는다. 여성에게 유혹당한 남성에게 정신적 고뇌와 죄책감이라는 지적 고통을 통한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죄의 원인자로서 정신병에 걸려야 할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초자아, 무의식, 성충동, 규범, 억압 등의 정신분석이 가부장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부장 윤리는 세계를 규율하는 정당한 법으로 복귀하고, 여성의 내면은 처벌을 받아야 할 과잉 에로스적 정체성으로 확정된다. 정신분석학이 가부장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는 논리로 사용되는 것이다.

사실 금기를 어긴 책임은 은미보다 안 교수에게 더 있고 정신병을 촉발하게 된 계기도 그의 외도에 있지만 작품은 안 교수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우며 예술 창작과 묘지 이장을 통한 참회라는 구제의 길을 열어놓는다. 사촌인 은미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안 교수는 은미의 혼처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자 걱정적 사랑에 휩싸여 그녀를 겁탈하고 동경으로 함께 데리고 갔던 것으로 안 교수와 은미의 사랑은 60년대 낭만적 사랑의 과장된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입양한 후 성을 바꾸어 결혼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의 내부로부터 우렁우렁 퍼져오는 함성이 있었다.

「나는 은밀 사랑해 은미도 나를 사랑해」

사내는 단언하듯 말했다.

나직하나 강한 울림이었다.

「.....」

「사랑은 절대적인 힘이다. 전부다」

「.....」

「사랑은 서로가 상대방을 요구한다. 필연적으로....」

「.....」

「나는 은미를 민가놈한테 빼앗길 수 없어」

사내는 무겁게 한 발 다가섰다.

여인은 사내의 눈 안쪽으로부터 뜨겁게 뻗어오는 불길을 보고 다부지게 몸을 도사렸다.²⁸

작품의 시작 부분으로 비극의 전조를 알리는 죄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다. ‘사랑은 절대적인 힘이라’고 외치는 안 교수에게서 낭만적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드러나고 개인의 선택으로 시작된 연애를 결혼까지 실행함으로써 두 사람은 60년대 낭만적 사랑을 실현한다. 아버지가 선택한 상대와의 집단적 결합이 아닌, 개인이 선택한 사람과의 정서적 교감에 기초한 사랑과 그것을 결혼으로까지 연결시킨 60년대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를 실행한 것이다. 작품은 이를 ‘죄의 씨앗’이라고 지목함으로써 그것에 결합된 가부장 질서에 대한 위반을 공격한다. 근대 자본주의 사랑인 낭만적 사랑에 내재된 전통사회를 배반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사랑에 결부된 성적 요인을 비판하는 것이다. 영우와의 결혼을 가로막는 유주의 불치병이 유주 부모의 혼전 임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 유주 부모의 죄의식을 통해서도 낭만적 사랑에 대한 공격이 거듭 확인된다.

낭만적 사랑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60년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진입한 60년대 아들 세대의 곤혹스러운 심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 집단적

28 이견영, 앞의 책, 11쪽.

전통과 윤리를 떠나 도시로 진입한,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대상과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갈등과 곤혹이 죄의식으로 투영된 것으로 그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잠복돼 있다. 여성의 내면과 육체를 에로스 과잉의 섹슈얼리티로 과장함으로써 아들이 여성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여성의 육체와 내면이 과잉 에로스로 재현되는 것은 낭만적 사랑과 연결된 아들의 죄의식과 그것을 방어하려는 알리바이적 시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⁹ 알려진 바와 같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사랑 형태인 낭만적 사랑은 60년대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적 주제였지만 정상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한다. 이성애적 사랑과 일부일처제의 프로테스탄티즘적 윤리에 기초를 둔 낭만적 사랑은 현실적 기초가 미비한 상황에서 남성의 외도가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일반화되면서 여성이 체념과 좌절을 내면화하는 비극적 환상의 구조로 왜곡되는데³⁰ 전통적 가부장주의와 갈등하는 낭만적 사랑 문제를 여성의 에로스 과잉 때문인 것으로 원인을 돌림으로써 여성에게 죄의식과 억압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의 논리에서 보면 안 교수가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버지 세계의 복원으로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꿈에 아버지가 물에 등등 떠 있는 것을 본 후 이를 이상히 여긴 안 교수는 지관을 찾아가 물속에 떠 있는 아버지 묘지를 확인하고 이장한다. 큰아버지의 호령 때문에 장자임에도 아버지 장례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안 교수가 이장이라는 형식을 통해 장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부계를 복원시키는 것이다. 엄중하게 절차를 지켜 치러지는 이장 행사는 그것이 단순한 ‘이장 행위’가 아닌 ‘속죄 의식’임을 보증한

29 이는 안 교수의 외도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음대 교수로 여제자가 많았던 안 교수는 영화음악 작업 중 의도적으로 접근한 여가수의 ‘저돌적인 유혹적인 육체에 얽혀’, ‘잠깐 외도를 하였고 이후 아내에게 바로 사과한 후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아내의 ‘질투가 가라앉지 않고 있지도 않은 사건을 추측해서 히스테리를 부리고 (...) 신경질을 부려’ 결국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자포자기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영화의 여성들도 모두 에로스적 육체를 통해 유혹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30 송인화, 「1960년대 여성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의미—강신재와 한무숙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221-250쪽.

다. 자식을 모두 대동하고 이장을 거행하는 안 교수는 직접 시체를 꺼내 낙골을 수습하고 해골의 흙을 털어낸 후 다시 엮을 한다. 또 이장 후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올리고, 곡을 하고 예단을 들고 재배를 하는 등 장례의 정식 과정을 모두 수행한다. 상여군과 선소리꾼 그리고 북까지 동원된 이러한 장대한 의례는 장자권의 회복과 속죄를 위한 형식적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보증하고 이를 통해 안 교수는 ‘장례마저 손으로 치를 수 없었던 (….) 죽어 마땅한 죄인’(111)인 자신의 죄를 씻고 정신병의 공포에서 구제된다. 이장 후 안 교수가 ‘속죄니다 속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죄의식의 억압에서 벗어났음을 알리는 외침이다.

그러나 안 교수와 달리 여성들은 죽거나 유편됨으로써 사실상 구제의 길이 봉쇄된다. 정신분열증을 앓던 안 교수 부인은 정신병원에서 나와 요양 중 환각 증세로 음독 자살하고, 정신발작을 일으키며 불치병을 앓던 유주는 도피 유학을 떠났으나 그곳에서 병사한다. 유전적으로 정신박약이라는 정신병을³¹ 가지고 태어난 송아는 오빠인 영학에 의해 살해되는데 송아의 죽음은 시간(屍姦)의 형태로 제시됨으로써 심각성을 더한다. 한때 소문난 영재로 기업에서도 촉망받았던 영학은 어머니의 발병 이후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적 삶을 살던 중 동생인 송아를 목졸라 죽인다. 송아를 볼 때마다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피의 의식’이 그에게 분노를 치솟게 했고 그것이 쌓여 어머니가 자살한 별장으로 송아를 데려가 죽이는 것이다. 영학의 행위는 다혈질적인 성정 탓도 있지만 그보다 영우가 장자로서의 책임을 추궁한 후 행해졌다는 점에서 우발적이 아닌, ‘의식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가족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를 제거하는 행위인 것으로, 안 교수와 영우가 자신들을 ‘공범자’라고 자책하며 그들도 “송아가 은근히 죽기를 바라고 있었”(212)다고 말하는데서, 그리고 송아의 죽음은 “우리 집안의 비극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셈”(213)이라고 말하는 데서 이러한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를 통해 영학의 살해는 집안을 절망에서 구제하는, 어쩔 수 없는 행위로 구제되고 송아의 죽음은 죄짓음 의식에 바쳐진 희생의 제물로 미화된다. 송아가 “한 순간도 인간답게 살아보지 못했다는”(213)말은 살해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고 영우와 안

31 1960년대 정신의학의 분류에 의하면 정신박약은 정신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앞의 책, 104-105쪽.

교수는 송아의 죽음에 대해 전혀 애도하지 않는다.³² 그보다는 영학의 행위를 이해하고 법적인 처벌을 줄여주려는 노력에 집중하는데 따라서 송아의 죽음은 여성 에로스에 대한 소멸을 통해 가부장질서로 복귀하고자 하는 남성 인물들의 집단적 소망을 반영한다. 영학의 시간 행위는 여성 에로스에 대한 상징적 처벌 의식으로, 직접적 훼손과 응징을 통해 죄의 씨앗을 소멸하려는 그로테스크한 제의성을 보여준다.

그는 시체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창틈으로 빠죽 새어든 달빛이 시체의 하얀 허벅지 위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는 스커트를 확 잡아챘다. 이어서 팬츠마저 잡아챘다. 우지직하며 옷 찢어지는 소리와 뻗뻗해진 시체의 뼈마디 부딪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렸다.

송아의 섹수가 그의 눈 앞에 다가왔다. 그것은 팽팽하도록 난숙해서 싱싱한 생명감이 넘치고 있었다. 거무칙칙한 거웃 틈새로 식물의 쏘옥 닳은 클라이트리스(陰核)가 강인하고 충실한 상징인 양 버티고 있었다. 그는 그 위에 픽 쓰러졌다. 창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³³

송아의 나체 위에 영학이 덮치듯 쓰러져 있는, 정사를 연상케 하는 충격적 현장은 그러나 작품에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히려 죄의 원인이 되는 ‘더러운’ 실체를 훼손함으로써 죄를 씻는 구원 행위로 제시된다. 나아가 정신병에 걸려 자살한 역사적 인물들과 영학의 살인을 유사 행위로 연동시킴으로써 그것에 신비적 아우라까지 부여한다.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강한 분노와 공격성이 드러나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 여성은 부정하고 더러운 성기 자체가 되고 비극적 파괴를 불러오는 저주의 대상이 된다. 죽거나 성에 갇히는 것 외에 구제의 길이 봉쇄되는 것이다.

작품에서 여성들은 죽거나 아니면 감금되는데 송아의 언니인 경아는 수녀

32 작품에서 여성들의 죽음은 전혀 애도되지 않는다. 안 교수 부인, 송아는 물론 유주의 죽음에 대해서도 부모를 포함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그녀들의 죽음에 슬픔하지 않는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극적 요인을 제거하는 필연적 과정으로 간주되어 냉담할 정도로 차갑게 처리된다.

33 이견영, 앞의 책, 196쪽.

가 되는 방식으로 유폐된 성에 갇힌다. 피아니스트로 촉망받으며 아버지를 유독 따랐던 경아는 신앙이라는 이유로 수녀원을 택한 것처럼 제시되지만 신에 대한 복종이라는 그녀의 신심은 연인인 상만의 면회에도 심하게 흔들리고 밖을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등 그리 굳건하지 않다. 수련 기간 중 그녀는 자신이 수녀원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 회의하고 파계하는 동료 수녀로 인해서도 심하게 갈등하는 등 수녀원 입소가 자발적인 것이기보다 강제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작품은 ‘깨달음’이라는 자각의 방식으로 자기부정의 길을 확정한다. 경아는 “자기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수녀원의 담벽은 결국은 자신이 쌓아 올려야 한다”(171)을 깨달음으로써 사랑과 욕망을 지우고 자기 부정의 길을 선택한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수녀원의 성에 갇혀 성적 욕망을 지우고 자기를 부정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 수녀의 순결성으로 섹슈얼리티를 지우고 신에 대한 복종 윤리를 통해 가부장 윤리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복종과 순결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유폐를 통해서만 여성은 생명을 보장받는다.

여성의 성을 삭제하는 것과 달리 남성에게는 욕망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길을 제공한다. 묘지 이장을 통해 장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가부장 질서를 재건한 안 교수는 죄의식을 예술로 승화시켜 교향곡을 작곡한다. 「아내의 죽음」, 「피아노 콘체르토 No7」(선친께 헌정함)은 아내의 죽음과 아버지에 대한 죄의식을 ‘고뇌’로 녹여 만든 역작으로 욕망의 억압과 문화적 승화라는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성적 충동을 억압하지 못하는 여성과 달리 남성은 욕망을 적절하게 억압하여 문화로 승화시키는 ‘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으로 고뇌는 남성만의 정신으로 특권화된다. 경아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경탄하는 것과 달리 영학이 아버지의 음악에 있는 고뇌가 그녀에게는 없어 훌륭하지 못하다고 혹평하는 데서 그러한 인식이 확인된다. 문화와 지성을 창출하는 영역, 곧 지성을 산출하는 고뇌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논리에서 여성들은 지식인이나 예술가가 되지 못한다. 작품에서 남성인물들은 작곡가, 의사, 조각가, 미술가 겸 비평가, 연구자 등 엘리트 전문직이나 예술가 직업을 갖는 것과 달리 여성들은 무직이거나 어설픈 예술가를 시도하다 수녀원에 갇힌다. 논리나 이성은 물론 문화와 지성을 창출하는 ‘고뇌’도 여성에게 불가하다고 통제하는 성차별적 배제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전통 범종을 이용한 안 교수의 국악 창작은 정신의학과 가부장이데올로기의 모순적 결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주목이 된다. 이장 후 바로 떨어져 리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던 안 교수는 교통사고로 손을 다쳐 더이상 작곡을 할 수 없게 되자 마지막으로 필생의 역작으로 동양의 범종소리를 수집하여 교향곡을 창작하는 작업에 몰두한다. 서양 작곡 전공자인 안 교수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전통 악곡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통적인 세계를 복원하려는 희구가 서구 음악가의 지식과 모순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서구 지식을 선망하면서 동시에 가부장적 전통 질서를 염원하는 60년대 남성 지식인의 모순적 희구가 이러한 예술의 창작에도 확인된다.

정신과 전문의를 등장시켜 정신의학 지식을 동원하고 서양음악 교수와 미술가 등 예술가 들을 통해 서구 지식에 대한 강한 끌림을 보여주면서도 떠나온 전통에 대한 아들의 죄의식과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안타까운 희구를 모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의 모순적 콤플렉스가 여성에 대한 억압을 더욱 가열하게 했던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정신분석은 성차별적으로 여성의 내면을 억압하는 과학/지식으로 사용된다. 서구 유학을 통해 도입된 최신 정신의학이 내면을 성차별적으로 구성하는 데 동원되는 것으로 과학이라는 권위를 통해 그것은 공고한 지식으로 합리화된다.

4 맺으며: 60년대 ‘내면’과 젠더 권력으로서의 정신의학

일제 식민지기에 처음 소개된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은 50년대 후반부터 의학 지식의 경계를 넘어 사회 문화 담론으로 전후 한국 지식담론 구성에 참여한다. 해방 전 일본에서 도입된 우생학 중심의 정신의학은 50년대 후반 미국 유학과 수련을 마친 정신의학자들이 대거 귀국하여 미국의 정신의학계를 지배하던 정신분석 이론을 적극 도입하면서 역동정신의학으로 옮겨간다. 이후 정신분석은 의학계는 물론 사회와 인간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60년대 지식장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지식으로 수용된다.

정신과 의사들이 사회문화 대담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사회 분석에 의학 지식이 사용되기도 하면서 정신분석은 의학 지식의 경계를 넘어 인간과 그 문

제를 성찰하는 지식인들의 담론에 폭넓게 유입된다. 노이로제와 히스테리는 정신의학적 용어를 넘어 일반인들의 대화에서도 사용되었고 일부 정신의학자들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정신분석 이론으로 분석하는 글을 『사상계』에 연재하기도 한다. 무의식, 억압, 충동, 자아, 초자아, 승화 등의 개념은 문학 분석의 도구로도 활용되는 등 문학과 비평에서도 정신분석은 매력적인 지식으로 사용된다. 서구 지식에 적극적이었던 당대 지식인들에게 미국의 의학계는 물론 지식인들 사이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던 정신분석 이론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었을 것이고, 특히 당대 지식인에게 관심이 높았던 ‘내면’을 구성하는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분석은 문학장에 흡인력 있게 유입되었을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을 해명하는 가장 핵심적 가치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상상적 공간이었던 내면을 채우는 혹은 그것의 현존성을 보장해주는 객관적 지식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57년데 서울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주최한 프로이드 탄생 101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의학자만이 아니라 인문학자도 대거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는 기록은 이러한 상황을 증명한다.

‘내면’은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60년대 지식인의 자의식에 의해 상상적으로 재현된 심상공간으로, 교육받은 고등 지식에 비해 현실적 기반을 충분히 갖지 못한 지식인들의 과잉된 자의식을 반영한다. 외부와 갈등하는 내적 공간을 내면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외적인 것보다 우월한 가치로 상정함으로써 내면은 60년대 문화 담론과 문학 영역에 문제적 대상으로 초점화 된다. 따라서 자의식이 비대했던 당대 지식인들에게 정신분석이 별반 저항 없이 수용되었던 것은 그것이 내면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유용한 지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을 위한 매력적 도구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60년대 문학에 심대한 충격을 주었던 정신분석 이론이 어떻게 인간의 내면을 규정하고 성적 정체성을 구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 정신병이 집중적으로 탐구되는 『회전목마』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정신병은 ‘미친’, ‘돌은’ 등의 표현을 통해 혐오 담론에 자주 등장하며 60년대 이분법적 체계의 소외된 타자로 비정상, 불건전의 영역에 배치되지만³⁴ 실상 이를 분류하고 진단하는

34 60년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이전 시기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부정적으로 역행했다. 동

기준 자체가 자의적으로 정해짐으로써 질병과 정상의 경계가 불분명한 채 넘나 들었다. 뿐만 아니라 자궁의 어원에서 시작된 히스테리가 언제든 남성중심적 규범에서 일탈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젠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³⁵ 여성 정신병은 특정 질병이기보다 여성 일반의 내면으로 확장시켜 볼 수 있다.³⁶ 이 글은 히스테리, 무의식, 성충동 등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정신을 사유하는 정신분석이론이 여성의 정신병, 나아가 여성의 내면을 어떻게 상상적으로 재현하고 또 억압하는지를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회전목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회전목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거의 모두 정신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정신병은 무의식에 속한 성적 충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미성숙한 자아 때문인 것으로 제시된다. 정신병을 가진 여성은 과잉된 에로스의 이미지로 재현되고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위협적 요인으로 비판된다. 질투망상에 의해 정신분

정적인 시각이 점차 사라지고 흉악범과 동일 선상에서 불가해하고 위험천만한 위협적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일제 식민지시기부터 우생학을 통해 일상의 영역에서 축출되고 분리된 정신질환자들은 더이상 막연한 ‘불쌍한’ ‘동정받을’ 대상이 아니라 ‘미친’, ‘돌은’ 등으로 규정되며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정신병원은 혐오시설이라 하여 설립이 예정된 지역의 반발에 봉착하였고 언론에서도 ‘작두’, ‘낫’, ‘생사람 골을 빼 먹는’, ‘뚝으로 썰어’ 등의 자극적 제목으로 정신질환자를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였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역사에 대해서는 정창권, 『근대장애인사—장애인 소외와 배제의 기원을 찾아서』, 사우, 2019, 139-147쪽;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앞의 책, 97쪽 참고.

- 35 문화담론으로 히스테리를 해명한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은 서양 의학 및 과학의 역사는 무질서한 형식을 배제하는 경계짓기의 역사이며 규범과 정상성을 추구해온 역사로 히스테리는 표현불가능한 모든 것을 바꿔쓰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이유로 정상에 넣을 수 없는, 예외의 상태로 간주된다고 전제된 모든 것은 히스테리로 간주된다고 말한다.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엄양선·윤명숙 역, 『히스테리』, 여이연, 2003, 25-6쪽.
- 36 최윤경은 정신병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2배에 가까이 높게 발병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는 진단 기준, 평가 도구, 적용 등이 남성중심적으로 젠더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정신의학에서 통용되는 분류기준인 DSM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에서 표집의 편향, 진단 구성개념의 편향, 평가도구의 편향 외에도 진단기준 자체의 편향과 기준 적용의 편향이 여성 남성에 비해 정신병이 높게 나타난 이유라고 해명한다. 최윤경, 「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고찰: 젠더 편향과 여성 고유의 위협요인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3권 1호, 2010, 205-219쪽.

열증으로 자살한 어머니의 조각과 일기, 그리고 유전에 의한 정신병으로 판정된 딸 송아의 그림과 조각은 원시적 에로스 충동을 표현한 것으로 여성의 내면은 규범에 의해 관리되지 못한 미성숙한 에로스 과잉으로 재현된다. 리비도적 충동을 적절하게 억압하지 못함으로써 성적 충동이 원시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정신분석적 개념을 동원하여 여성의 정체성을 과잉 성애화 한다. 나아가 식민지기의 정신의학인 우생학을 통해 정신병을 유전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60년대 공고하게 구축된 가족이데올로기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공격한다. 이러한 과정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되고 과학/지식을 통해 확정됨으로써 객관적 지식으로서 권위를 갖게 되는데 일제 식민지기의 우생학과 최신 의학인 정신분석학이 여성의 내면을 억압하는데 이중으로 동원되고 있다.

죄의식의 원인과 구제의 방식 역시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배반으로 제시됨으로써 전통적 가부장이데올로기와 정신분석적 의학지식이 결합된다. 아버지의 뜻을 배반하고 사촌과 결혼했다는 금기 위반이 죄의 근인으로 제시되면서 전통적 윤리를 배반하고 낭만적 사랑을 실현한 아들의 죄의식과 공포가 여성 정신병에 결박된다. 가부장인 아버지의 목소리를 배반하고 도시로 이주하여 개인적 선택과 사랑에 의한 결혼을 한 아들의 죄의식이 작동한 것으로 죄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여성은 과잉 에로스의 정체성으로 재현된다. 남성을 유혹하여 아버지를 배반케 하는 에로스적 유혹의 대상으로 여성의 내면이 구성되는 것으로 정신분석학과 가부장이데올로기가 결합되어 여성을 유혹하는 에로스로 성애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은 가족을 파괴하는 에로스 과잉의 미성숙한 정신병자이거나 이성적일 경우 매력을 상실한 탈성화된 존재로 사랑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어느 경우이든 감시와 처벌의 딜레마에 갇히게 되는 것으로 치열한 내부 갈등에 갇힌 60년대 여성의 인물의 내면은 이러한 딜레마와 공포를 반영한다. 여성에게 구제의 길은 제시되지 않는데 작품에서 여성은 자살, 병사, 살해 등으로 죽거나 수녀원 입소를 통해 간힘으로써 겨우 생명이 보장된다. 존재가 소멸되는 죽음이나 정체성을 부정하고 신에게 복종하는 자기 부정의 방식을 통해 처벌되는 것이다. 반면 남성은 성충동을 적절히 억압하는 정신으로서의 고뇌를 통해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고 그러한 승화 과정을 통해 구제됨으로써 정신분석학의 성취 서사를 자기화한다. 여성의 내면이 공동체를 위협하

는 미성숙한 에로스로 타자화되는 반면 남성의 내면은 고뇌하는 문화적 주체이자 정신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60년대 내면을 구성하는 지식으로 유입된 정신분석학이 가부장이데올로기, 우생학 등과 결합하여 여성의 내면을 성애화하고 처벌을 합리화하는 젠더 지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이건영, 『회전목마』, 문예출판사, 1968.
『사상계』, 1961.1, 1963.12~1964.11.

단행본

권보드레, 천정환, 『1960년을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2, 1-663쪽.
김창엽 외,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삼인, 2002, 1-312쪽.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의학 100년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9, 1-386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정신과학교실 100년을 넘어』, 2016, 1-91쪽.
정창권, 『근대 장애인사—장애인 소외와 배제의 기원을 찾아서』, 사우, 2019, 1-334쪽.
Antoine Vergote, 김성민 역, 『죄의식과 욕망』, 학지사, 2009, 1-468쪽.
에드워드 쇼터, 최보문 역, 『정신의학의 역사』, 바다출판사, 2009, 1-541쪽.
장-다비드나지오, 표원경 역, 『히스테리—불안을 욕망하는 사람』, 한동네, 2017, 1-253쪽.
김 닐슨, 김승섭 역, 『장애의 역사』, 동아시아, 2020, 1-319쪽.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엄양선·윤명숙 역, 『히스테리』, 여이연, 2003. 1-492쪽.

논문

- 김양선, 「195·60년대 여성-문학의 배치—『사상계』 여성문학 비평과 여성작가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127-163쪽.
- _____, 「전후 여성 지식인의 표상과 존재방식—박경리의 『표류도』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5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235-256쪽.
- 김은정, 「질병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청준의 〈퇴원〉 읽기」, 『우리말글』 제77호, 우리말글학회, 2018, 245-271쪽.
- 김은하, 「중산층 가정소설과 불안의 상상력: 강신재의 장편 연재소설을 대상으로」, 『대중서사 연구』 제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115-145쪽.
- 김정관, 「권위주의적 사회구조와 소설의 형식」, 『반교어문연구』 제32호, 2012, 463-491쪽.
- 송인화, 「1960년대 여성소설과 ‘낭만적 사랑’ 의미—강신재와 한무숙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221-250쪽.
- _____, 「강신재 소설의 여성성과 윤리성의 문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9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133-158쪽.
- _____, 「1960년대 『여원』 연재소설 연구—연애담론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93-336쪽.
- 심영덕, 「황순원 소설 「별」에 나타난 ‘소외’ 양상」, 『한민족어문학』 제74호, 한민족어문학회, 2016, 471-499쪽.
- 심지현, 「김승옥 소설의 정신분석적 연구—〈생명연습〉을 중심으로」, 『한국말글학』 제25호, 한국말글학회, 2008, 67-89쪽.
- 양선규, 「황순원 소설의 분석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992, 1-192쪽.
- 우찬제, 「李淸俊 小說에 나타난 不安 意識 연구」, 『어문교육』 제3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89-212쪽.
- 이승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정신분석 연구—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현대 소설연구』 제17호, 현대소설학회, 2002, 347-367쪽.
- 임지연, 「1960-70년대 한국 정신의학 담론 연구—정신위생학에서 현대 정신의학으로—」, 『의학사』 제26권 2호, 대한의사학회, 2017, 181-214쪽.

정원채,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웃음의 미학」, 『현대소설연구』 제3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387-412쪽.

최애순, 「1960년대 정신분석의 도입과 근대적 공포 코드의 전환: 이청준 소설의 ‘정신병자’와 정신분석 치료의 충돌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273-311쪽.

최윤경, 「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고찰: 젠더 편향과 여성 고유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3권 1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0, 203-232쪽.

Abstract

Representation of Women Psychosis in the 60s and Hysteria
: Medical Knowledge as Gender Power and Sexualized “Inner”

Song, Inhwa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way women’s mental illness in the 60s is represented in literary works in relation to contemporary medical knowledge with the subject of the novel 『Carousel』, which was elected by the Hankook Ilbo in 1962. This is to find out how psychoanalysis as dynamic psychiatry, eugenic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patriarchal theology superimposedly regulated and regulated women in the work of the 60s, when the discourse on psychosis was expanded due to the systemat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psychiatric knowledge. In the work, women are overly sexualized as a threat to the community, and women with mental illness are represented as immature anomies that are not managed by the superego. It also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ugenic punishment by defining psychosis as a sin inherited through generations. The inner part of women was recreated as an object of fear that threatened the family, the basic community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in the 1960s. Eugenic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psychoanalysis, the latest Western medical knowledge, intervened in a double way to suppress women. Furthermore, in the cause and remedy of female psychosis, psychoanalysis attacks women in combination with patriarchal theology. By presenting the cause of psychosis as a result of love with a cousin who violated the taboo and focusing the problem on the breakdown of paternal ethics, not pathological disease, the sin of deviating from the tradition and group order is transferred to women in the manner of retribution of psychosis. The son’s sense of guilt, who betrayed the voice of the father

and practiced personal love and marriage, is at work, and by transferring the cause of the sin to the woman, the identity of a woman is defined as excess eros. Psychoanalysis is combined with patriarchal theology to sexualize as an eros that seduces women, and this gender discrimination is also confirmed in the salvation method. Unlike women who only preserve life through suicide, murder, death of a soldier, or self-denial that confines themselves in a convent, men are suggested to create culture and art by appropriately suppressing and sublimating guilt. Through this, men are presented as mature cultural creators who manage libido, and women are presented as immature anomalies of excess eros that threaten the family community. The immature, sexually filled woman's interior is always subject to surveillance and punishment threatening the community.

Key words: Woman psychosis, Psychoanalysis, Eugenics, Patriarchal ideology, Sexualization, Inner, Romantic love, Guilt, Punishment, Sublimation, Genderization, Science/Knowledge

본 논문은 2020년 11월 17일에 접수되어 2020년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